

23. 허생의 생각은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본문 학습】

문장	“惜 <sup>1</sup> 乎 <sup>2</sup> 라. 吾 <sup>1</sup> 讀 <sup>3</sup> 書 <sup>2</sup> 에 本 <sup>4</sup> 期 <sup>7</sup> 十 <sup>5</sup> 年 <sup>6</sup> 한데 석 호 오 독 서 본 기 십 년	惜 애석하다 乎 어조사 吾 나 讀 읽다 書 책 本 본래 期 기약하다 十 열 年 해
풀이	• 惜乎: 감탄문[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로)구나! ▶ “애석하구나! 내가 책을 읽음에 본래 10년을 기약하였는데	
문장	今七年矣 <sup>라</sup> ” 하고 出門而去 <sup>한데</sup> 無相識者 <sup>라</sup> . 금 칠 년 의 출 문 이 거 무 상 식 자	今 지금 七 일곱 矣 어조사 出 나가다 門 문 而 어조사 去 가다 無 없다 相 서로 識 알다 者 사람
풀이	• 矣: ~이다                      • 而: ~해서 • 相識: 서로 얼굴을 알 정도로 친분이 있음. ▶	
문장	直之雲從街 <sup>하여</sup> 問市中人曰 “漢陽中 <sup>에</sup> 직 지 운 종 가 문 시 중 인 왈 한 양 중 誰最富 <sup>오</sup> ” 하니 수 최 부	直 바로 之 가자 雲 구름 從 좇다 街 거리 問 묻다 市 시장 中 가운데 人 사람 曰 가로다 漢 나라이름 陽 별 誰 누구 最 가장 富 부유하다
풀이	• 雲從街: 동대문과 서대문을 잇는 길로, 상가가 밀집한 상업의 중심지. • 誰: 의문문[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누가 ~인가? ▶	



문장	有道卞氏者 <sup>어늘</sup> 遂訪其家 <sup>라</sup> . 유 도 변 씨 자 수 방 기 가	有 있다 道 말하다 卞 성씨 氏 성씨 者 사람 遂 마침내 訪 찾다 其 그 家 집
풀이	• 者: ~(한) 사람 ▶	
문장	許生 <sup>이</sup> 長揖曰 <sup>하니</sup> “吾家貧 <sup>이나</sup> 허 생 장 읍 왓 오 가 빈	許 성씨 生 사람 長 길다 揖 읍하다 曰 가로다 吾 나 家 집 貧 가난하다
풀이	• 揖: 인사법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	
문장	欲有所小試 <sup>하니</sup> 願從君借萬金 <sup>하노이다.</sup> ” 하다. 욕 유 소 소 시 원 종 군 차 만 금	欲 하고자하다 有 있다 所 바 小 작다 試 시험하다 願 원하다 從 좇다 君 그대 借 빌리다 萬 일만 金 금
풀이	• 所: ~(하는) 바 • 從: ~로부터 ▶	

※ 한문 소설에 담긴 가치와 사상을 이해하고 심미적 감성을 기를 수 있게 한다.

※ 허생이 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리해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모양	平	乎	呼
음			
뜻			

〔나〕

家屋 가옥 • 家宅 가택 • 戶主 호주 • 窓戶紙 창호지 • 書堂 서당 • 講堂 강당 •		• 한 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 • 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 • 사람이 사는 집 • 사람이 살고 있는 집. • 강연이나 강의, 의식 따위를 할 때에 쓰는 건물이나 큰 방. • 글방.
--	--	--

〔다〕

財貨 재화 • 效用性 효용성 • 空理空論 공리공론 • 惡化 악화 • 代案 대안 • 念願 염원 • 代應 대응 • 私的 사적 • 見解 견해 •		•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 인간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 쓸모나 보람이 있는 성질. •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함. •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 어떤 안(案)을 대신하는 안.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 • 실천이 따르지 아니하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 개인에 관계된.
---	--	---

【꼭 알아 둥시다】

■ 감탄문이란

감탄문은 ‘아!’의 의미를 담은 ‘嗚呼(오호)’, ‘於乎(어호)’, ‘嗟乎(차호)’, ‘噫(희)’ 등을 쓰거나 ‘~로다’, ‘~구나’의 의미를 갖는 ‘夫(부)’, ‘與(여)’, ‘哉(재)’, ‘(호)’ 등을 사용한다.

- 哀哉(애재) 슬프구나!
- 噫天喪予(희 천상여)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 ■ 의문문이란

의문문은 ‘誰(수), “孰(숙)’, ‘安(안)’ 등을 써서 ‘누가 ~인가’, ‘어떤 ~인가?’ 등의 뜻을 나타낸다.

- 何物最深(하물최심) 어떤 물건이 가장 깊은가?
- 漢陽中, 誰最富(한양중, 수최부)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 ■ 한양 갑부 변 씨의 정체

소설 속의 변 씨는 변승업의 조부로 나오지만 변 씨가 바로 변승업을 모델로 한 인물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한양 최고 갑부로 유명했던 변승업 집안을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허생이 변 씨에게 빌린 돈이 은인지 동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동전으로 본다면 현재 가치로 약 2억 원이 된다. 만약 은이라면 8억 원에 해당한다. 변 씨는 어떻게 수억 원의 거금을 선뜻 내줄 정도로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는 변 씨가 유명한 역관 가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역관은 통역을 맡아보는 것이 공식적인 업무였지만 조선 후기에는 상업 활동도 함께 담당하였다. 왜란과 호란을 겪어 재정이 부족했던 조선 정부는 사행(使行)에 필요한 공공 경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없어 대신 역관들에게 자금을 주고 그 자금으로 청에서 무역을 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역관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무역을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변 씨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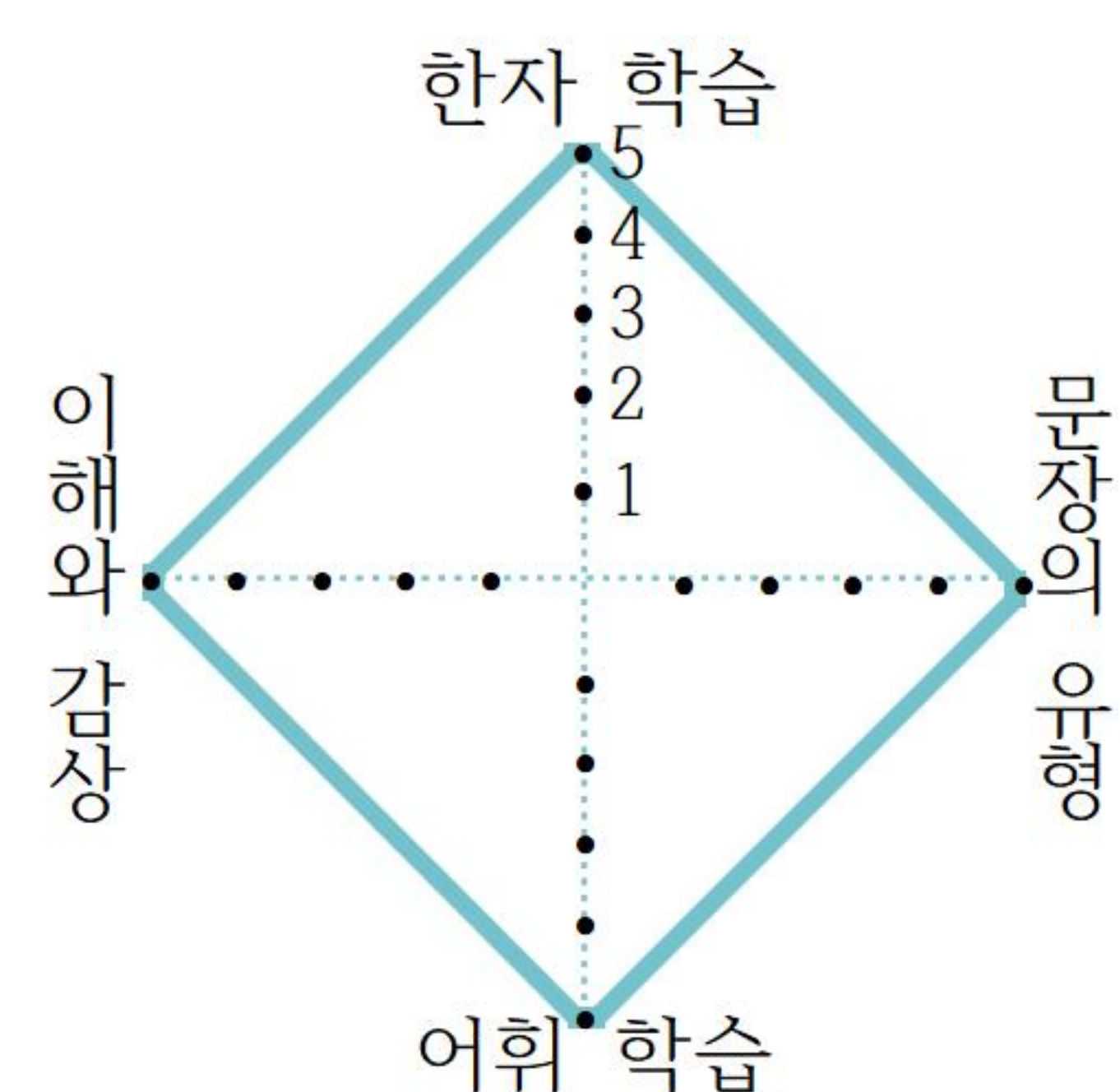
<출처> 신병주 외, “고전 소설 속 역사 여행”

## ■ 열하일기(熱河日記)

조선조 1780년(정조 4)에 북경, 열하를 다녀온 박지원이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발전한 청나라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생생하게 기록한 여행기가 바로 “열하일기(熱河日記)”이다. 내용상으로 볼 때 “열하일기”는 청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의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견문과, 이에 기초한 박지원의 실학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하일기”의 곳곳에서 박지원은 청나라가 눈부신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청나라가 한족(漢族)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저항을 억누르려고 고심하고 있음도 꿰뚫어 본다. 또한 박지원은 상업을 중심으로 청나라의 발전상을 다각도로 증언하면서,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혁할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김명호 외,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4.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면

이름: \_\_\_\_\_ ( )학년 ( )반 ( )번

날짜: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_\_\_\_\_ 월 \_\_\_\_\_ 일

【본문 학습】

문장	論 <sup>4</sup> 省 <sup>3</sup> 人 <sup>1</sup> 力 <sup>2</sup> <sub>한대</sub> 蓋 <sup>5</sup> 凡 <sup>6</sup> 人 <sup>7</sup> 之 <sup>8</sup> 起 <sup>9</sup> 重 <sup>10</sup> <sub>이면</sub> 논 생 인 력 개 범 인 지 기 중	論 논하다 省 줄이다 人 사람 力 힘 蓋 대개 凡 평범하다 之 ~이 起 일어나다 重 무겁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省: 살피다(성), 줄이다(생)</li><li>凡人: 평범한 사람</li></ul> <p>▶ 사람의 힘을 줄이는 것에 대해 논하건대, 대개 평범한 사람이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려면</p>	
문장	必 <sup>1</sup> 力 <sup>2</sup> 與 <sup>3</sup> 重 <sup>4</sup> 相 <sup>5</sup> 等 <sup>6</sup> <sub>이라야</sub> 方 <sup>7</sup> 得 <sup>8</sup> 起 <sup>9</sup> 動 <sup>10</sup> <sub>이라.</sub> 필 역 여 중 상 등 방 득 기 동	必 반드시 力 힘 與 더불어 重 무겁다 相 서로 等 같다 方 바야흐로 得 할수있다 起 일어나다 動 움직이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與: ~와(과)</li><li>得: ~할 수 있다.</li></ul> <p>▶</p>	
문장	如 <sup>1</sup> 一 <sup>2</sup> 百 <sup>3</sup> 斤 <sup>4</sup> 之 <sup>5</sup> 重 <sup>6</sup> <sub>이면</sub> 必 <sup>7</sup> 須 <sup>8</sup> 一 <sup>9</sup> 百 <sup>10</sup> 斤 <sup>11</sup> 之 <sup>12</sup> 力 <sup>13</sup> <sub>이라야</sub> 여 일 백 근 지 중 필 수 일 백 근 지 력	如 만약 一 하나 百 일백 斤 무게단위 之 ~의 重 무겁다 必 반드시 須 모름지기 之 ~의 力 힘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必須: 반드시 ~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가 필요하다.</li></ul> <p>▶</p>	



문장	始足以當之 <sub>나라.</sub> 今法止用一具滑車 <sub>하면</sub> 시 족 이 당 지 금 법 지 용 일 구 활 차	始 비로소 足 할수있다 以 써 當 감당하다 之 그것 今 지금 止 다만 用 쓰다 具 기구 滑 미끄럽다 車 수레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足以~: 족히 ~할 수 있다.</li> <li>• 滑車: 도르래</li> </ul>	

문장	則能以五十斤之力 <sub>으로</sub> 起一百斤之重 <sub>이니</sub> 즉 능 이 오 십 근 지 력 기 일 백 근 지 중	則 곧 能 할수있다 以 써 斤 무게단위 之 ~의 起 일어나다 重 무게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則: ~(하)면</li> </ul>	

문장	此以力之半 <sub>으로</sub> 抵重之全也 <sub>나라.</sub> 차 이 력 지 반 저 중 지 전 야	此 이 以 써 力 힘 之 ~의 半 반 抵 해당하다 重 무게 全 온전하다 也 어조사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力之半: 힘의 절반</li> <li>• 也: ~이다.</li> </ul>	

※ 실학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선인들의 지혜를 현재적 관점에서 발전시킬 수 있게 한다.

※ 거중기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휘 학습】

〔가〕

動靜 동정 • 勸告 권고 • 勞困 노곤 •	• 물질의 운동과 정지. • 나른하고 피로함.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	---

〔나〕

印朱 인주 • 人主 인주 • 必須 필수 • 必修 필수 • 傳承 전승 • 全勝 전승 • 原因 원인 • 原人 원인 •	• 임금. • 꼭 있어야 하거나 하여야 함. • 도장을 찍는 데 쓰는 붉은빛의 재료. • 문화, 풍속,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 계승함. • 반드시 학습하거나 이수하여야 함. •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 전쟁이나 경기 따위에서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김. • 40만~50만 년 전의 화석 인류.
--	---

〔다〕

- 太陽을 肉眼으로 관찬해서는 안 된다. (    )
- 곤충이나 식물을 採集할 때 장갑을 착용하면 有害性이 차단되므로 안전하다. (    )
- 혼합물을 만질 때에는 安全한 物質인지의 與否를 먼저 확인하다. (    )
- 과학 실험에서 安全의 第一 尺度는 철저한 실험 設計이다. (    )
- 실험을 하고 난 화학 약품은 버리지 말고 再活用해야 한다. (    )

太陽 태양 • 肉眼 육안 • 採集 채집 • 有害性 유해성 • 混合物 혼합물 • 安全 안전 • 物質 물질 • 與否 여부 • 尺度 척도 • 設計 설계 • 再活用 재활용 •	• 맨눈. • 해로운 성질이나 특성. • 여러 가지가 뒤섞여서 이루어진 물건. •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는 일. • 물체의 본바탕. • 그러함과 그러하지 아니함. • 태양계의 중심이 되는 항성. • 계획을 세움. • 폐품 따위를 용도를 바꾸거나 가공하여 다시 씀.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 평가하거나 측정할 때 의거할 기준.
---	--



## 【꼭 알아 둬시다】

### ■ ‘省’의 쓰임

- (성) 살피다: 昏定而晨省(혼정이신성) 저물면 (잠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핀다.
- (생) 줄이다: 省刑罰薄稅斂(생형벌 박세렴)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하다.

### ■ ‘蓋’의 쓰임

- 덮다: 日月欲明而浮雲蓋之(일월욕명이부운개지) 해와 달은 밝으려 하나 뜬구름이 그것을 덮는다.
- 대개, 무릇: 蓋文章經國之大業(개문장경국지대업) 무릇 문장이란 나라를 경영하는 큰 사업이다.

### ■ ‘如’의 쓰임

- 만약 ~라면: 如不可求從吾所好(여불가구 종오소호) 만약 (부유함을) 구할 수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바를 따르겠다.
- ~와 같다: 如反掌(여반장)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

### ■ 거중기와 기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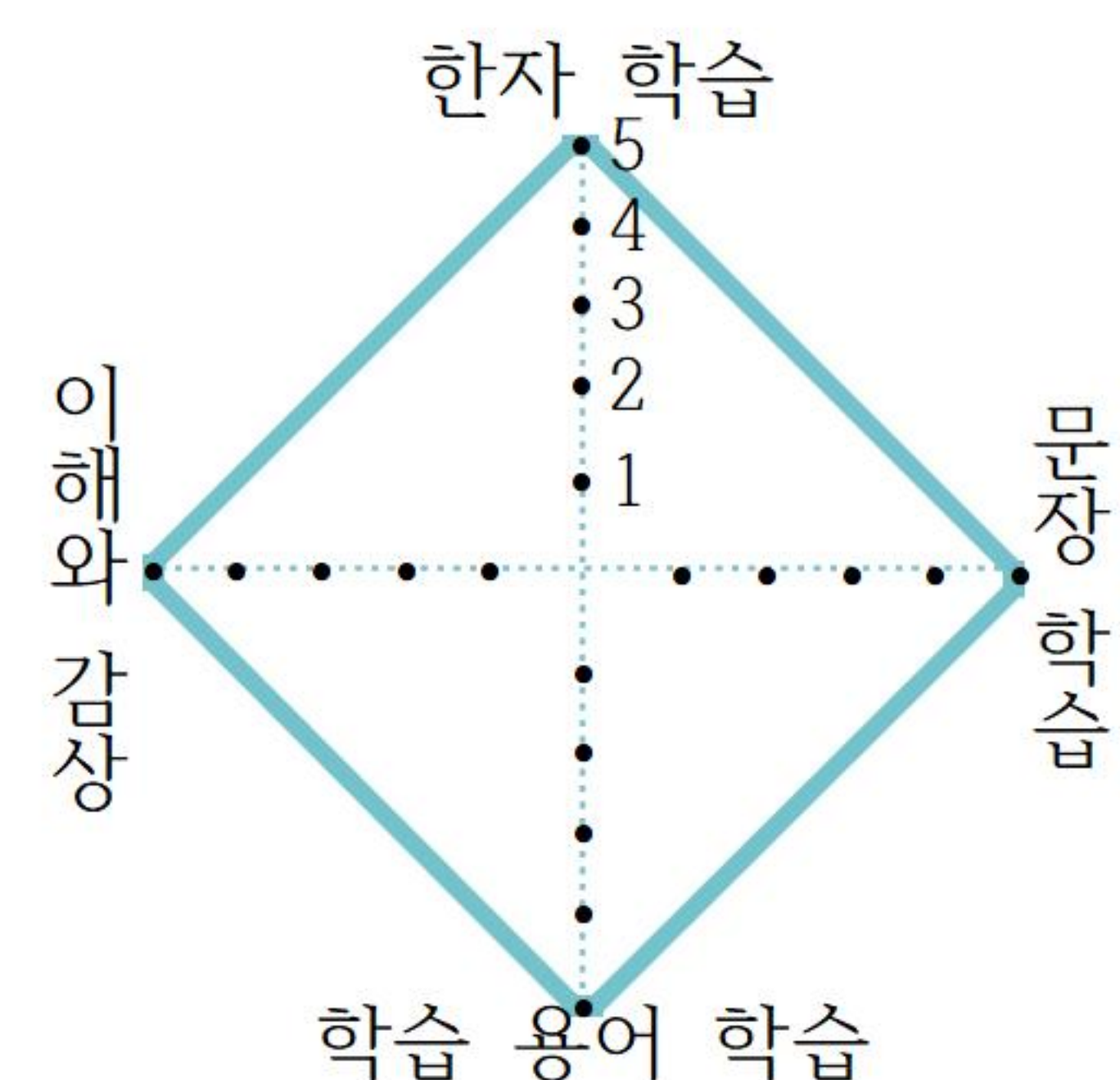
- 거중기(舉重機): 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던 기구로, 조선 정조 때에 수원 화성(華城)의 성곽을 쌓는 데 사용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의 ‘기중도설(起重圖說)’에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있는데,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게 되어 있다.
- 기중기(起重機): 동력을 사용하여 무거운 짐을 매달아 올리고 이것을 수평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계 장치의 총칭으로, 크레인이라고도 한다.

### ■ 여유당(與猶堂)의 뜻

정조의 상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당호를 여유당(與猶堂)이라 했다. 이것은 “도덕경(道德經)의 한 대목인 ‘여(與)함이며,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유(猶)함이며,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라는 글귀에서 따온 것으로, 조심조심 세상을 살아가자는 것이다. 어쩌면 정약용은 이미 폭풍이 몰아칠 정치의 기상도를 알아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움 또한 쓸모없는 처세술이 되고 말았다.

<출처> 이이화, “이이화의 인물 한국사”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25.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름: ( )학년 ( )반 ( )번

날짜:       년       월       일 ~       월       일

【본문 학습】

문장	心 <sup>1</sup> 不 <sup>4</sup> 在 <sup>3</sup> 焉 <sup>2</sup> <sub>이</sub> 면 視 <sup>5</sup> 而 <sup>6</sup> 不 <sup>8</sup> 見 <sup>7</sup> <sub>하</sub> 고 심 부 재 언 시 이 불 견	心 마음 不 아니다 在 있다 焉 어조사 視 보다 而 어조사 見 보다
풀이	<div> <div>• 焉: 이에</div> <div>• 而: ~하나</div> </div> <div>▶ 마음이 이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div>	

문장	聽 而 不 聞 <sub>하</sub> 며 食 而 不 知 其 味 <sub>니</sub> 라. 청 이 불 문 식 이 부 지 기 미	聽 듣다 而 어조사 不 아니다 聞 듣다 食 먹다 知 알다 其 그 味 맛
풀이	<div>• 而: ~하나</div> <div>▶</div>	

문장	無 欲 速 하고 無 見 小 利 <sub>하</sub> 라. 무 욕 속 무 견 소 리	無 없다 欲 하고자하다 速 빠르다 見 보다 小 작다 利 이롭다
풀이	<div>• 無: ~하지 마라</div> <div>▶</div>	



문장	欲速則不達 <sup>이요</sup> 見小利則大事不成 <sup>이라</sup> . 욕 속 즉 부 달 견 소 리 즉 대 사 불 성	則 達 見 大 事 成 곧 이르다 보다 크다 일 이루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則: ~하면</li> </ul>	
문장	誠者 <sup>는</sup> 物之終始 <sup>니</sup> 不誠 <sup>이면</sup> 無物 <sup>이라</sup> . 성 자 물 지 종 시 불 성 무 물	誠者 物之終始 성실하다 것 사물 ~의 끝 처음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之: ~의</li> </ul>	
문장	是故 <sup>로</sup> 君子 <sup>는</sup> 誠之爲貴 <sup>니라</sup> . 시 고 군 자 성 지 위 귀	是故 君子 誠之爲貴 이 까닭 군자 사람 성실하다 그것 여기다 귀하다
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是故: 이러한 까닭으로, 그러므로</li> <li>• 君子: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li> </ul>	

※ 유교 경전을 통해 한자 문화권의 근본 사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자신의 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세에 대해 간단한 글을 써 보자.

※ 학습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낌은?

※ 학습을 통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어휘 학습】

### 〔가〕

口味 구미 •	• 어떤 일이 장하여 감탄할 때 하는 말.
吹打 취타 •	• 일 따위가 마음먹은 대로 잘되어 만족스럽게 여김.
壯哉 장재 •	• 입맛.
快哉 쾌재 •	• 뛰어나게 잘 부르는 노래나 그런 사람
著名 저명 •	• 관악기를 불고 타악기를 침.
名唱 명창 •	• 세상에 이름이 널리 드러나 있음.

### 〔나〕

丹心 단심 •	•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
歡心 환심 •	• 사물의 한가운데.
眞心 진심 •	• 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스러운 마음.
愁心 수심 •	• 도시의 중심부.
都心 도심 •	•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
中心 중심 •	• 매우 근심함. 또는 그런 마음.

### 〔다〕

過猶不及 과유불급 •	• 하찮은 남자의 용기
不忍之心 불인지심 •	• 하는 일 없이 놀고먹음.
泰山北斗 태산북두 •	• 학문이나 예술 분야의 대가나 훌륭한 존재.
匹夫之勇 필부지용 •	•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無爲徒食 무위도식 •	•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 〔라〕

列國 열국 •	• 적과 마주 대함.
表面 표면 •	• 군사상의 힘.
云云 운운 •	• 여러 나라.
武力 무력 •	• 사물의 가장 바깥쪽.
對敵 대적 •	• 계속해 지녀 나감.
極甚 극심 •	•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함.
持續 지속 •	• 매우 심함.
富國強兵 부국강병 •	•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따름.
解決 해결 •	• 이러이러하다고 말함
順應 순응 •	•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됨.
適應 적응 •	• 얹힌 일을 풀어 처리함.
平等 평등 •	• 권리, 의무, 자격 등이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꼭 알아 둬시다】

### ■ ‘無’의 쓰임

- 없다: 人誰無過, 過而能改, 善莫大焉(인수무과, 과이능개, 선막대언). 사람이 누가 잘못이 없겠는가? 잘못을 능히 고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 ~ 하지 마라: 無若丹朱傲(무약단주오) 단주(요임금의 아들)처럼 거만하지 말라.

### ■ 금지를 나타내는 한자: 不, 勿, 莫, 無

- 不患人之不己知(불환인지불기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라.
- 己所不欲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 請君莫奏前朝曲(청군막주전조곡) 청컨대 그대는 전 시대의 노래를 연주하지 말라.

### ■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어

- 충년(沖年): 10세, 열 살 안팎의 어린 나이.
- 약관(弱冠): 남자의 스무 살 전후를 이르는 말.
- 고희(古稀): 70세. 두보의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온 말.
- 미수(米壽): 88세. 米자를 풀면, ‘八十八’이 되는 데서 유래.
- 백수(白壽): 99세. 百에서 一을 빼면 白이 되는 데서 유래.
- 방년(芳年): 여자의 스무 살 안팎의 나이.
- 환갑(還甲): 61세. 華甲(화갑). 回甲(회갑).

### ■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들

- 노자(老子): 중국 고대 사상가이며 도가의 시조. 노자의 중심 사상은 우주 생성설과 음양의 자연학을 도입하여, 세계는 도(道)로부터 나오고 ‘도’에 의하여 생성·사멸 운동을 한다고 하는 객관적 관념론을 전개하였다. <출처> 임석진, “철학사전”
- 묵자(墨子):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가의 시조로 전국 시대 초기에 활약한 사상가. 그의 정치사상은 ‘천해(天下)에 이익 되는 것(利)을 복돋우고(興), 천하의 해가 되는 것(害)을 없애는(除)’ 것을 정치의 원칙으로 하였다. 타인을 사랑하고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서로 높이는 ‘비공(非攻)’과 ‘겸애(兼愛)’를 주장했다. <출처> 임석진, “철학사전”
- 한비자(韓非子): 중국 전국 시대 한(韓)나라의 왕족 출신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창한 순자(荀子)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워 뒷날 법가(法家)의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하고 성문화된 법은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www.doopedia.co.kr

#### ※ 나의 학습 성취도 체크하기

